

다음은 다섯 친구를 노래한 시조의 일부입니다. 제재가 상징하는 의미에 주목하여 감상해 봅시다.

● 오우가(五友歌) | 윤선도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에 뿌리 끝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제4수)

어휘 풀이

- 수석: 물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어이하다: '어찌하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 모르는다: 모르느냐.
-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

☞ 이 책의 부록 293쪽에서 '오우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윤선도(1587~1671): 조선 시대의 문신. 순우리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을 노래한 시조를 많이 지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어부사시사', '만흥'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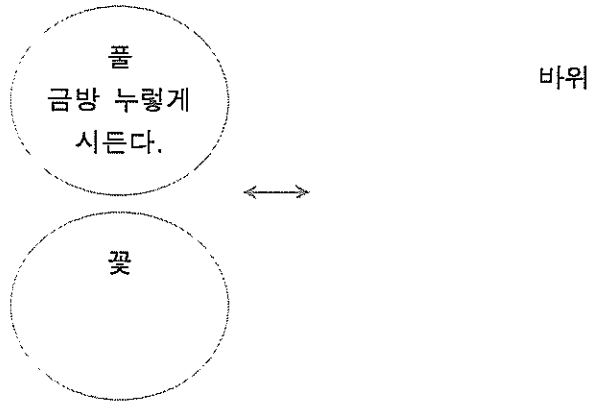
학습 활동

목표 학습

1 제1수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우(五友)를 적어 봅시다.

도움말 '꽃'과 '풀'의 특성과 대비되는 '바위'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제3수에 나오는 '꽃'과 '풀', '바위'의 특성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3 제4수에 드러나 있는 소나무의 특성을 말해 봅시다.

알아 두기

시조의 특징

시조는 고려 시대 중엽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를 기본형으로 한다. 대체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다. 종장의 처음은 3자로 고정되어 있다. 한 제목 밑에 여러 수를 엮은 시조를 연시조라고 하는데, '오우가'는 6수로 된 연시조이다.